

TDB경기동향조사 (전국) - 2017년 5월 조사 -

2017년 6월 5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주춤한 경기회복, 인력부족이 과제로

~ 수출 및 설비투자로 인한 회복이 지속될 전망 ~

(조사대상 2만 3,983사, 유효회답 1만 142사, 회답율 42.3%,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17년 5월의 경기DI는 전월과 보합인 46.5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도쿄올림픽과 건설관련이 왕성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부담증가도 보여 최근 지속되었던 경기회복이 주춤하였다. 향후 경기는 해외리스크가 우려요소인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로 인하여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부동산』『소매』 등 5개 업계가 개선, 『서비스』 등 5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인력부족현상이 우려요인이지만 『건설』『부동산』 모두가 개선되어, 관련된 제조나 도매 등 건축자재업종도 상향되었다. 『서비스』는 5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9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 『롯데이도』『호쿠리쿠』 등 10개 지역 중4개 지역이 개선, 『킨키』 등 6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체감경기의 개선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롯데이도』에서는 건설업이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인 반면, 『킨키』에서는 중국의 생산감퇴 등으로 제조업이 부진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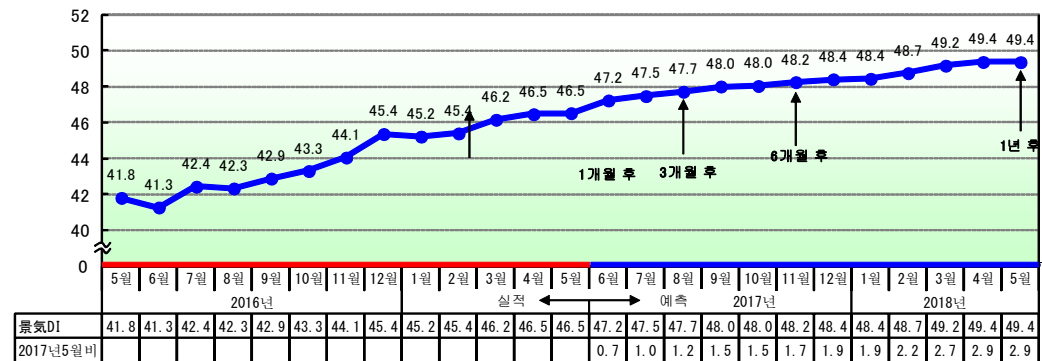
< 2017년 5월의 동향 : 주춤한 회복 >

2017년 5월의 경기DI는 전월과 보합인 46.5이 되었다.

도쿄올림픽이나 재해복구 등 공공공사의 증가나 왕성한 재개발수요에 더불어 임대주택 등 신설주택착공호수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건설』 이외에, 2014년 3월 이래 3년 2개월 만에 50선을 회복한 『부동산』이 개선되어 건축자재 등 관련업종의 체감경기도 상향되었다. 주가의 가격안정과 양호한 날씨, 6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솔린가격 등이 5월 국내경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광열비·인건비 상승 등의 코스트부담이 가중되어 인제확보에 고심하고 있다는 의견이 드러난 『서비스』 등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도쿄올림픽이나 부흥수요 등의 건설관련이 왕성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부담증가 또한 존재하여 최근 이어졌던 경기회복은 주춤한 상태이다.

< 향후 전망 : 회복세 지속 >

향후의 국내경기는 수출과 더불어 기업수익의 개선과 인력부족대책으로 인한 회복이 전망되는 설비투자가 견인하여,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소비는 실질임금의 제자리걸음으로 인하여 강력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서서히 기업부문의 개선이 가계부문에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가상승과 함께 6월에 예정되어 있는 골태(骨太) 방침과 성장전략이 경기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정세나 프랑스의 회·영국총선거의 행방, 지정학적 리스크고조는 엔고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의 불안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해외리스크가 우려요인인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하였음.